

**그 족속이 좋든 나쁘든 그 족속에서 낳으면
그 족속이 되어 믿고 사랑하고 섬기게 된다**

본 문 요한복음 8장 43-45절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을 빕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주일에는 ‘그 족속이 좋든 나쁘든, 그 족속에서 낳으면 그 족속이 되어 믿고 사랑하고 섬기게 된다.’에 대해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잠언으로 한 동작씩 쉽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1. 자기가 섬기는 자가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영이 지옥에 갔는데도 그를 따라 살면 구원받고 좋은 세계에 갈 줄 알고, 그를 구원자로 믿고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이 있다.

지도자의 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갔으면, 그를 섬기며 따른 자들의 영도 지옥에 가게 된다.

이는 마치 철흑 같은 암흑 속에서 자기 지도자를 따라가고 있는데, 지도자가 앞에 가다가 절벽으로 떨어진 줄 모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격이다. 결국 그를 따르는 자들도 절벽으로 떨어지게 된다.

2. 시대가 발달됐어도 인간들은 너무도 무지하여 전능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과 사신들을 마치 최고 신이나 되는 듯 섬긴다.

3. 사탄, 마귀, 악마를 섬기며 사는 자들도 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세상에는 사탄, 마귀, 악마를 섬기며 사는 자들이 너무도 많다. 사탄, 마귀, 악마가 인간을 쓰고 행하여 인간을 통해 자신을 섬기게 한다. 우상이요, 악한 자들이다.
4.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를 섬기고, 마귀가 하는 짓을 하며, 마귀의 주장을 하면서 나를 대항하며 불신하는구나.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 진리에 서지 못하는구나.” 하며 책망하셨다.
5. 지구 세상에 살인마들과 악한 조직단과 테러단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악한 자들을 모시고 섬기고 좋아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다.
- 각 나라 주권자들 중에서 누가 독재자였는지 보고, 과거와 현재의 역사를 보아라. 그들은 수백만, 수천만 명의 무고한 백성들을 죽였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여 멸해 버리셨다.
6. 세상에는 악한 자, 불의한 자, 흉측한 자를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해가 안 될 것이다. ‘그럴 수가 있을까?’ 생각할 것이다.
- 국가에서도 ‘법’으로 악한 자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지만, 사람들이 그들을 섬기니 그들이 시키는 일을 한다. 왜 그럴까? 돼지 새끼는 제 어미 아버지를 따라 돼지를 섬기며 좋아하듯, 악한 자도 악한 자를 낳아서 길렀기에 거기서 난 자들은 악한 자를 섬기며 좋아한다.
7. 자기 사랑하는 자가 악한 자라도 그래도 섬기며 좋아서 따라간다. 왜 그럴까? 그 악한 자가 낳아 주고 사랑해 주며 길러 줬기에 그를 섬기고 사는 것이다.

8. 우상으로 칭송받던 자의 육이 죽으면, 그 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 있다. 그런데도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그를 최고 유일신으로 보고 섬기고 절하면서 “그를 믿으면 좋은 세계에 간다.” 한다.

그렇게도 모를까? 하나님을 절대 신, 유일신으로 믿고 섬기지 않으면, 그 영은 꼭 지옥에 간다. 그런데도 우상을 섬긴다. 왜 그럴까? 우상의 자녀이며, 우상의 몸이기 때문이다.

9. 자기 부모가 악한 자라도 부모니까 섬긴다. 자기 주권자가 악한 독재자로서 전쟁을 일으켜 7백만 명을 죽이고, 천만 명을 죽이고, 6천만 명을 죽였어도 정치의 영웅이라고 하며 섬긴다.

유일신 하나님은 ‘악’을 최고로 싫어하시고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악과 불의를 행한 자의 ‘육과 영’이 어떻게 되었겠느냐.

하나님은 시대가 선으로 뒤바뀌게 하시어 악과 불의를 행한 자들의 ‘육’을 다 잡아 처형하게 하셨다. / 그리고 그 ‘영’은 사람이 어떻게 하지 못하니, 유일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시어 영원한 사망 지옥에 던져 영원히 고통받게 하셨다.

10. 유일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계시고, 삼위일체가 세상에 보낸 메시아가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삼위가 보낸 메시지를 통해 삼위를 섬기지 않고, 성경을 비논리와 비진리로 푸는 자를 믿고 섬기고, 거짓되게 자기를 메시아라 하는 자들을 섬긴다.

왜 그렇게 무지할까? 왜 따를까?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가 마귀라도 자기 아비니까 섬기고 따른다.” 말씀하셨다. 악한 자가 낳고 길렀기에 그 족속이 되었으니, 악한 자라도 믿고 섬기는 것이다.

뱀은 뱀끼리 좋아하여 같이 살고, 괴물은 괴물끼리 좋아하여 같이 산다. 인간도 그러하다.

11. 성경에 자기 선조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도 자기가 그 족속이니 그 선조의 정신과 사상과 뇌와 몸으로 태어나 심판받은 족속을 섬긴다고 했다. 같은 질의 종자는 일체 되어 상호 존재한다.

12. 그 민족에서 낳았기에 그 민족의 풍토, 문화, 언어가 몸에 배어 살 수밖에 없다. 벗어나야 된다. 고욤나무끼리 모여 살고, 참감나무끼리 모여 산다.

13. 자기가 섬기는 자가 악한 줄 알면서도 그를 섬기고 사랑하며 아내로 삼고, 남편으로 삼고, 애인으로 삼고 산다. 서로 악하여 서로 좋아하기 때문이다.

14. 자기가 악한 줄 알면서도, 자기가 선한 자가 못 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며 산다. 왜 그럴까? 자기 몸이니까 어쩔 수 없다. 자기가 살아야 하고 존재하려니, 자기를 못 죽이고 사는 것이다.

고로 전능자 하나님과 성자와 메시아께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삼위일체를 섬기고 살아라. 그러면 변화되어 선한 자가 된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신부가 되도록 ‘네 육’이 이 시대 최고 합당한 성자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네 영’을 천국의 형체로 변화시켜 최고의 신이 되어 살아라.

이것이 악한 너를 구원하기 위해 네가 할 일이다. 선(善)에 속하지 않은 인류의 모든 자들이 이같이 해야 된다.

15. 뱀이 낳으면, 뱀이 되어 뱀을 사랑하고 섬기며 산다.

16. 전갈이 낳으면, 전갈이 되어 전갈을 사랑하고 섬기며 산다.
17. 고욤나무의 씨로 낳으면, 고욤나무 돌감나무가 되어 그 취급을 받고 살아간다. 어쩔 수 없다. 고욤나무 돌감나무를 잘라서 거기에 참감나무를 접붙여 줘야 참감나무가 되어 참감 열매를 열고 살아간다.
- 악한 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에게 속한 세계의 진리와 접붙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써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야 한다.
18. 사람이 선을 모르고 악과 죄 속에서 사니, 생활 가운데 악만 먹고 산다. 고로 뇌도 몸도 마음도 악의 체질이 되어 악을 좋아하고 생활화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 절대 신 하나님의 선의 기준으로 심판받아 악하게 행한 대로 대가를 받고, 그 혼도 영도 사망에 던져져 세세토록 고통받고 살게 된다.
19. 악은 조금이라도 호리라도 자기가 회개하여 없애야 된다. 그리고 대신 선으로 살아야 된다.
20. 악한 자의 행함은 결국 전능자의 심판을 받게 된다.
21.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의로운 행위와 악한 행위를 저울에 달고 심판하신다.
22. 하나님이 보실 때 참된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심판하여 사망으로 가게 하신다. 기도하고 한 달, 두 달, 세 달, 일곱 달, 1년 동안 자기를 깨닫고 알고 자기를 구원해라.

이단 종교들은 절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고 심판하신다. 참된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자들의 영혼이 어느 영계에 가 있는지, 기도하여 찾아보아라. 구원받은 영들이 사는 곳에 서는 못 찾는다. 거기에는 없기 때문이다.

이 사실도 하늘의 비밀이라서 아무나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자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려고 간구하고 원하면, 합당한 일이라 보여 주신다.

성경에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우상으로 칭송되어 섬김을 받은 자들과, 악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의 영은 세세토록 타는 불못에 들어간다 했다.

23. 자기가 우상을 섬기면, 거기에다 절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사랑하며 산다. 자기 뇌가 무지로 인해 우상으로 꼭 차서, 우상 중독이 되어서 착각하며 살아간다.

그러니 전능자 유일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성령님도 안 보이고, 성자도 안 보이고,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유일신으로 본다.

사탄 마귀는 사람을 쓰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그들에게 광명한 천사같이 나타나거나 하나님 행세를 하며 거짓 계시를 한다. 그들은 그것을 보고 우상을 유일신으로 섬긴다.

기도하여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을 몰라서 무지 속에 사는 자들을 구원하여라.

24. 악한 자라도 선한 자에게 시집가면 선하게 살게 되고, 선한 자라도 악한 자에게 시집가면 악하게 살게 된다.

25. 고욤나무에 참감나무가 붙으면 참감나무가 되어 참감을 열고, 참감나

무에 고욤나무가 붙으면 고욤나무가 되어 고욤 열매를 열게 된다.

26. 악하고 무지한 자가 하나님께 속하고 성자에게 붙으면 선한 자가 되고, 선한 자라도 우상과 악한 자에게 붙으면 악한 자가 된다.

27. 악하게 살아도 자신을 악하다 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자기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하며 산다.

28. 악에서 태어나서 악하게 사는 자들은 그 조상이나 신앙의 조상이 악하기 때문에 자기도 악한 것을 주장하면서 살게 된다.

29. 원시인들은 그 조상들을 따라 원시생활을 좋아하며 산다. 악한 자도 자기가 행하는 악이 악인지 모르고 좋아하며 산다.

폭력자들과 악한 자들을 보라. 국가에서 그렇게도 법에 어긋난 행위라고 하며 옥에 가두고 형벌을 줘도 그 일을 주장하면서 또 악을 행하며 산다. 주동자를 섬기면서 자기도 똑같이 행한다. 어쩔 수 없다.

그들은 몸에 각종 것을 문신으로 새기며, 자기를 나타낸다. 용, 뱀, 구렁이, 흉측하고 무서운 야수, 전갈, 악어, 괴물들을 새기고, 자기는 그 같은 자라고 과시하며 보여 준다.

어떤 족속은 손목이나 목에 표를 새겨 자기는 하나님의 족속이라 표시하고, 어떤 족속은 흰옷을 입어 자기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 표시하고, 어떤 족속은 검은 두건으로 얼굴을 싸고 다니며 자기가 어떤 족속인지 표시한다.

30. 지옥에나 영계에 가면, 자기가 속한 대로 행하며 그에 해당되는 옷을 입고 다닌다. 어떤 영들은 몸 자체가 자기가 속한 환경대로 변형되어 있다. 어떤 영은 상체는 사람이지만 하체는 뱀이 되어 다닌다. 어떤

영은 상체는 사람이지만 하체는 전갈, 야수, 괴물의 몸이 되어 다닌다. 어떤 영은 머리에 흉한 뿔이 나 있기도 하다.

지상에서도 ‘자기 악한 행위’ 대로 자신을 악하게 나타내며 살아가고, 영계에서도 ‘악한 대로’ 그 영체가 악하게 형성되어 지옥, 무저갱, 음부에서 살면서 갖은 고통을 영원히 받고 산다.

31. 황금 보석 천국 세계에는 문신을 한 영도 없고, 흉한 얼굴을 한 영도 없고, 짐승과 뱀의 하체를 가진 영도 없다. 모두 미인, 미남이다. 옷도 찬란하게 빛나는 옷을 입고 천사들과 함께 다닌다.
32. 지상에서도 혼과 영들을 보면, 의에 속한 자는 그 형상이 의롭게 빛나게 보이고, 악에 속한 자는 그 형상이 악하게 보인다. 그에 따라 그 육신도 의롭게, 혹은 악하게 살게 된다. 의로운 자들과 악한 자들은 각각 자기가 속한 대로 무리를 지어 살기에 사는 세계도 다르고, 가는 코스도 다르다.
33. 우상 족속이라 우상을 섬긴다.
34. 악의 족속이라 악을 행한다.
35. 선의 족속이라 선을 행한다.
36. 영계에서도 선한 족속은 선한 행위를 하면서 존재하며 선끼리 뭉쳐 살고, 악한 족속은 악한 행위를 하면서 존재하며 악끼리 뭉쳐 산다.
37. 악평 족속들은 악평 속에서 산다.

38. 이단 족속에서 낳은 자들은 자기 족속 이단을 섬기며 산다.
39. 자기 족속, 자기 체질이다. 이는 자기 자유의지로 결정한 자기 삶이다.
40. 절대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유의지로 선택하여 살게 하셨다. 자기 뇌와 몸과 마음이 체질대로 선택하여 살아간다.
41. 자유의지대로 하더라도 절대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묻고 제대로 선택하고 살면, 하나님과 성자와 같이 살게 된다.
42. 자기 삶은 첫째, 자기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도 있고 / 둘째, 자기가 아예 그 족속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뇌와 몸과 마음이 그 족속을 닮아서 사니, 선택의 여지없이 우상 족속, 혹은 원시인 족속, 혹은 폭력 족속, 혹은 악한 족속, 혹은 독재자 족속에 속해 살게 되고, 백인 족속, 황인 족속, 흑인 족속에 속해 살게 된다.
43. 자기가 그 족속에서 벗어나서 살면, 새로운 세계의 조상이 되어 자기 후손들은 새로운 족속이 된다.
44. 절대 신이며 유일신이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면, 선의 조상이 되어 그 후손들도 선의 족속이 된다.
45. 자기가 악한 자가 되면, 그 후손들도 악한 후손이 된다.
46. 타락한 선조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4000년 동안 형벌의 후손이 되었다.

47.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를 믿고 섬긴 자들은 하나님 앞에 아들이 되고 선의 후손이 되어 2000년 동안 자녀급 세계로 번창하며 살았다.
48. 절대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섬기고 시대 보낸 자를 통해 시대 말씀을 듣고 살면, 새로운 자손이 되어 사랑의 신부 자손이 된다.
49. 성자의 재림을 맞은 자들은 알고 육이 땅에서 휴거되어 살고, 영은 영으로서 휴거되어 천국에 가서 산다. 이들은 시대의 한 족속을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
50. 악의 족속은 악의 세계에서 악의 제도 속에 살아간다. 그들은 선을 모른다.
51. 옛 족속은 옛 세계에서 옛 제도 속에 살아간다. 그들은 새로운 역사를 모른다.
52. 원시인들은 발달된 나라에 한 번도 안 가 봐서 발달된 세계를 모른다. 이와 같이 악의 원시인들은 천국에 대한 것을 한 번도 접해 보지 않아서 전혀 천국을 모른다.
53. 자기 뇌에 입력된 대로만 알고 행하며 산다.
54. 악한 자는 악이 뇌와 마음에 절어 있고, 뇌가 악하게 굳어 버렸다. 고로 그들이 선을 행하는 것은 마치 이로 바위를 뜯어 먹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55. 선한 만큼 악을 싫어한다.

56. 악한 만큼 선을 싫어한다.

57. 뇌와 마음이 악하게 굳은 자는 자기 행위를 악으로 안 보고 선으로 본다.

58. 뇌와 마음이 게으르게 굳은 자는 자기 행위를 게으르게 안 보고 자기 스타일과 생활로 본다. 악한 자도 그 뇌와 마음이 악하게 굳었기에 자기 행위를 악으로 안 보고 하나의 개념으로 본다.

59. 선한 자는 선한 만큼 악을 확실히 악으로 본다.

60. 하나님은 ‘악’ 이 하나님 주관권 안에 있으나, 지구 세상 안에 있으나, 다 심판하여 결판내신다.

61. ‘악’ 은 전능자에게 심판받을까 봐 전능자 앞에 오기를 싫어한다.